

##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조성희<sup>1</sup>, 이화영<sup>1\*</sup>  
<sup>1</sup>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ing Alone

Sung-Hui Cho<sup>1</sup>, Hwa-Young Lee<sup>1\*</sup>

<sup>1</sup>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요약**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고독감,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상태, 고독감,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bstract** The degree of difficulty in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ing alone' life satisfaction is increa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ing alone' life satisfaction by examining the comparative influence of loneliness,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data of 300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ing alone in Gyeonggi province. Findings of the study identifi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were health status, loneliness,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Further,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ing alone' life satisfaction even after controlling the influences of other factor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ing alone were discussed.

**Keywords** : Life Satisfaction, Loneliness,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ing Alone

#### 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저출산·고령사회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상 중 대표적인 현상이 가족형태의 변화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노인가구의 급증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5.6%, 2015년 27.1%에서 2035년 34.3%로 증

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 1인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4.0%(54만4천명), 2015년 27.3%(137만9천명)에서 2035년 45.0%(343만명)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1].

1인 노인가구인 독거노인의 수와 비율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된 사회변화는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충분하며 적잖은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독거노인은 노인부부 가구 및 자녀동거가구의 노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 및 건강 상태가 열악한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 또한 경제적·신체적 자립생활이 쉽

\*Corresponding Author : Hwa-Young Lee(Hyupsung Univ.)

Tel: +82-31-299-1468 email: hy\_home@naver.com

Received September 8, 2015

Revised (1st November 10, 2015, 2nd November 11,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많은 독거노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조차 결핍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사회경제적 결핍은 독거노인의 활동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체계로부터 분리될 우려를 높인다. 이는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을 초래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반복될 것이다[3,4].

[2]를 살펴보면, 현재 노인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에 있어 노인부부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흥미로운 반응을 볼 수 있다. 즉,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경제적 불안감(28.0%), 심리적 불안감·외로움(20.2%),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19.5%)의 순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반면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건강 및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37.2%), 심리적 불안감·외로움(24.4%), 경제적 불안감(21.6%)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독거노인가구가 경제적 상황이 좀 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빈약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접촉 빈도에서도 같은 맥락의 응답이 보여지고 있다. 즉 비동거 자녀,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 빈도가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독거노인가구에서 매우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 및 노인부부에 비해 독거노인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독거’·‘저소득층’이라는 특성에 따른 3중고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는 2013년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8.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노인 수급자는 37만6천명으로 총 수급자 중 29.9%를 차지하고 있다[5]. 또한 2014 노인실태조사에서 연가구 소득을 오분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연가구 소득이 0만원~754만원 이하인 제1오분위 해당 비율이 자녀동거가구 2.8%, 노인부부가구 12.2%인 것에 비해 노인독거가구인 경우 58.9%를 차지하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2]. 이는 많은 수의 독거노인가구가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 매우 열악함을 의미한다.

노후에 대한 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게 된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의료문제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사회

적 지지가 부족할 경우 생태체계 내에서 분리되는 외로움과 고독이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끊이지 않고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고독사 관련 이슈이지만, 아직 고독사 관련 정부의 공식화된 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 단절, 이웃 및 사회의 무관심이 증가되는 가운데 고독사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거노인들이 경험하는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에 대한 검토는 중요하다.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은 삶의 질, 생활만족도, 행복감, 심리적 안녕상태 등의 용어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6,7,8,9].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7].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독거노인 대부분은 여성이며, 고령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 빈곤, 자원 접근의 어려움 등을 겪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4,6,10,11]. 또한 사회적 지지 및 자원을 얻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2]. 실제 [2]에서 독거노인은 동거가구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취약하며 비동거 자녀 및 친인척과의 왕래·연락 빈도가 드물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경제·가족관계와 관련된 삶의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14]. 또한 독거노인의 정신건강수준은 동거가구의 노인들보다 낮았으며[15,16,17], 가족과의 관계단절 및 주변 친구들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슬픔, 고독감을 경험한다[18]. 이로 인해 우울, 고독감, 스트레스를 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19,20,21].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감은 무망감으로 이어져서 자살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7,22]. 반면 사회적 지지는 우울의 정도를 완화시키며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23]. 그러나 대체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독거노인은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고독감과 소외를 심하게 경험한다 [15,24].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는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지

지는 노인의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25]. 가족지지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킨다면 특정 동거형태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26]. 독거노인은 경제적·정서적·도구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4,16], 사회적 지지망이 있는 독거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4,23].

본 연구는 다른 노인 계층에 비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어 삶의 만족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을 살펴봄에 있어서 대상이 가진 특성을 반영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심리적 특성, 가족 및 사회 관계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영역의 개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족과 사회 관계적 특성이 다른 특성들에 비해 갖는 설명력과 그 중요성을 확인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고독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고독감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

기도 지역 노인복지관에 대상자 선발을 의뢰하였으며,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이 직접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300명의 대상자 중 설문조사의 결과가 연구목적 달성에 부적합한 6사례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는 총 294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삶의 만족

종속변수인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27]이 노인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만족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28]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도구로 삶의 만족의 수준을 묻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의 수준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에서 “매우 동의함(7)”의 7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의 분포를 갖는다. 측정값이 높을수록 노인이 자신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7]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82였고,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91로 나타났다.

### 2.2.2 인구사회학적 특성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기 위하여 검토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독립변수 중 성별, 연령,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입력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연령은 응답자들이 응답한 만나이를 활용하였다. 종교유무는 종교의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종교가 있는 경우(1)와 종교가 없는 경우(0)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노인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29]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개발한 Health Self Rating Scale[30] 중 2문항으로 “매우 나쁘다(1)”에서 “매우 좋다(5)”의 5점 리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의 범주는 2점에서 10점의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9]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79$ 였고,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91$ 로 나타났다.

### 2.2.3 고독감

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친숙한 관계를 맺어 오던 대상이나 역할을 상실함으로 발생하는 슬픔이나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의미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측정하기 위해 [31]의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UCLA Loneliness Scale[32]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수준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의 분포를 갖는다. 응답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험하는 고독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사회·정서적 역할에 대한 상실감, 소외감에 대한 인지, 사회적 관계단절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문항을 통해 노인의 고독감을 측정하였다. 문항 중 역질문 문항은 역점수 처리를 하였으며, [31]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70\sim.8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81$ 로 나타났다.

### 2.2.4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가족과 동거하지는 않지만 상호작용을 하면서 받게 되는 존중이나 위로와 같은 정서적 측면과 돌봄이나 물질적 지원과 같은 도구적 측면에서의 지지들을 의미한다. 가족의 지지는 [33]의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4]의 도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응답의 범위는 8점에서 40점의 분포를 갖는다. 가족의 지지 응답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문항으로 가족의 지지를 측정하였다. 문항 중 역질문 문항은 역점수 처리를 하였다. [33]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75\sim.8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86$ 으로 나타났다.

### 2.2.5 사회적 지지

노인들이 관계를 맺는 대상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평가나 소속감을 포함하여 주요한 주변 체계들을 통해 얻게 되는 지지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는 [35]의 연구에서 활용된 도구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6]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문항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25점에서 125점의 점수 분포를 갖는다. 사회적 지지의 응답 점수는 높을수록 주변 체계들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5]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82\sim.9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98$ 로 나타났다.

##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이 갖는 주요 특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인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과 삶의 만족 및 관련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삶의 만족과 주요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 결과를 통해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이 되는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심리적 특성, 가족 및 사회관계적 특성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분석에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모형들이 나타내는 결과들을 비교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SPSS 22.0을 활용하여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 중 여성은 149명(50.7%)으로 남성 145명(49.3%)에 비해 조금 많지만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구간은 76~80세로 84명(28.6%)이고, 연구대상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76.59세( $SD=5.96$ )이다. 종교를 가진 경우가 161명(54.8%)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은 2~3인 경우가 125명(4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평균 2.7점( $SD=.89$ )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45	49.3
	Female	149	50.7
Age	65-70	55	18.7
	71-75	70	23.8
	76-80	84	28.6
	81-85	63	21.4
	86-90	8	2.7
	more than 91	14	4.8
	<i>M(SD)</i>	76.59(5.96)	
Religion	No	133	45.2
	Yes	161	54.8
Health Status	less than 1	16	5.4
	more than 1 up to 2	93	31.7
	more than 2 up to 3	125	42.5
	more than 3 up to 4	48	16.3
	more than 4 up to 5	12	4.1
	<i>M(SD)</i>	2.70(.89)	

#### 3.2 주요변수들의 특성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삶의 만족과 이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특성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요 변수 종교고독감은 평균 2.77( $SD=.55$ )로 응답범주의 중간값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각각 2.77( $SD=.79$ ), 3.00( $SD=.70$ )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는 응답범주의 중간값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가족의 지지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 수준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 평균은 3.12( $SD=1.54$ )로 나타났으며, 이는 7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에 고독감( $r=-.384^{***}$ ), 가족의 지지( $r=.435^{***}$ ), 사회적 지지( $r=.487^{***}$ )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삶의 만족에 고독감은 부적으로,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Table 2. Variables'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Categories	Loneliness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Loneliness	1			
Family Support	-.371***	1		
Social Support	-.437***	.400***	1	
Life Satisfaction	-.384***	.435***	.487***	1
<i>M</i>	2.77	2.77	3.00	3.12
<i>SD</i>	.55	.79	.70	1.54

\* $p<.05$ , \*\* $p<.01$ , \*\*\* $p<.001$

#### 3.3 삶의 만족의 영향요인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에서 독립변수들 상호간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는 삶의 만족에 대한 개별변수의 정확한 영향력 추정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회귀분석 결과를 검토하기 이전에 독립변수들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개별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하는 과정과 다중공선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치인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과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487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 전체에서 공차한계의 경우는 가장 작은 값이 .679로 모든 변수에서 .10보다 높게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의 경우에는 가장 큰 값이 1.472로 1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3단계 모형은 모두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은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Categories	1 <sup>st</sup> Model			2 <sup>nd</sup> Model			3 <sup>rd</sup> Model		
	B	$\beta$	t	B	$\beta$	t	B	$\beta$	t
Constant	-.841		-.773	2.401		1.944	.529		.437
Gender	.247	.081	1.491	.113	.037	.699	-.074	-.024	-.482
Age	.017	.065	1.231	.009	.035	.686	-.007	-.027	-.542
Religion	.336	.109	2.052*	.225	.073	1.414	.219	.071	1.482
Health Status	.788	.456	8.688***	.664	.385	7.321***	.441	.256	4.881***
Loneliness				-.742	-.264	-4.942***	-.340	-.121	-2.250*
Family Support							.426	.218	3.887***
Social Support							.560	.257	4.678***
F Change	21.300***			24.428***			23.797***		
F	21.300***			23.307***			26.082***		
R <sup>2</sup> Change	.228			.060			.102		
R <sup>2</sup>	.228			.288			.390		

\*p<.05, \*\*p<.01, \*\*\*p<.001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모형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심리적 특성, 가족 및 사회 관계적 특성을 구분하여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았고, 개인심리적 특성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독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가족 및 사회 관계적 특성에서는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새로운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때마다 모형의 유의미성, 모델의 설명력과 추가적인 설명력의 변화, 각 변수들의 유의미성과 영향력 비교를 중심으로 각 모형을 살펴보았다.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2단계에서는 개인심리적 특성, 3단계에서는 가족 및 사회 관계적 특성 변수를 투입한 3단계 모형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1단계 모형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을 설명하고자 한 모형은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1.300, p<.001$ ). 1단계 모형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의 전체 변량 중 약 22.8%를 설명하고 있다( $R^2=.228$ ). 1단계 모형에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종교유무( $t=2.052, p<.05$ )와 주관적 건강상태( $t=8.688, p<.001$ )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과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만을 고려하여 볼 때 저소득 독거노인 중 종교가 있는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짐

을 의미한다. 종교유무와 주관적 경제상태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beta=.456$ )가 종교유무( $\beta=.109$ )에 비해 삶의 만족에 더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2단계 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에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추가적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개인심리적 특성으로 고독감을 투입하였으며, 고독감을 투입한 2단계 모형도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F=23.307, p<.001$ ). 고독감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2단계 모형은 전체 삶의 만족의 변량 중 28.8%( $R^2=.288$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 독거노인의 개인심리적 특성으로 고독감을 투입함으로써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 한 후에도 삶의 만족의 변량 중 약 6.0%를 새롭게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F\ Change=24.428, p<.001, R^2\ Change=.060$ ). 2단계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중 주관적 건강상태( $t=7.321, p<.001$ ), 고독감( $t=-4.942, p<.001$ )만이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성별, 연령, 종교유무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고독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2단계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beta=.385$ )가 고독감( $\beta=-.264$ )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2단계 모형에 가족 및 사회 관계 특성으로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3단계 모형 역시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F=26.082, p<.001$ ). 3단계 모형은 전체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의 변량 중 약 39.0%( $R^2=.390$ )를 설명하고 있다. 최종 모형에 투입된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1, 2단계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10.2%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Change=23.797,  $p < .001$ ,  $R^2$  Change=.102). 최종 모형인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던 주관적 건강상태( $t=4.881$ ,  $p < .001$ ), 고독감( $t=-2.250$ ,  $p < .05$ )과 3단계에 새롭게 투입된 가족의 지지( $t=3.887$ ,  $p < .001$ ), 사회적 지지( $t=4.678$ ,  $p < .001$ )가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고독감이 낮을수록,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최종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beta = .257$ ), 주관적 건강상태( $\beta = .256$ ), 가족의 지지( $\beta = .218$ ), 고독감( $\beta = -.121$ )의 순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저소득 독거노인의 문제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독거노인들의 취약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고독감과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인 가족과 사회적 지지가 갖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한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취약적 요소가 되는 고독감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15,19,20,2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경우에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독감을 통제한 후에도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 또한 선행연구 [4,16,23,26]의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에 대한 고독감,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고독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과 사회적인 관계의 축소로 인해 지지의 수준이 낮은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제도적인 접근 강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독거노인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지내게 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기관

에서 제공되고 있는 말벗서비스나 결연을 통한 사회적 관계 증진 등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립생활과 공동체 활동, 체계적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원룸형 공동주택사업이나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 등의 거주 형태 지원을 통해 고독감을 낮추고 관계형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어야 한다.

저소득 독거노인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지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과의 관계 및 사회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조모임, 가족단위의 결연 확대와 같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참여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제공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완화와 독거로 인한 관계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의 확대 실시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노인돌봄비들을 통한 지지와 관계 형성을 통해 공적인 서비스 체계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의 협업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실천적 개입에 있어서 노인의 가족 구성 특성, 소득을 포함하여 이들이 가진 특성에 따라 일반군과 고위험군으로 세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미충족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삶의 만족을 고독감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설명하기 위해 진행된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저소득 독거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단위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함에 있어 제한을 갖는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 변인들이 갖는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양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됨으로 인해 삶의 만족이 갖는 다양한 측면과 심층적인 부분을 충분히 제시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경험하는 현상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행되어지는 전국단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

들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질적연구의 수행을 통해 극복되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연구 모형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기 위하여 활용되어진 고독감과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 이외에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수행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삶에 대한 만족이 향상되는 방법의 제시와 도입을 기대한다.

## References

- [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URL: <http://kosis.kr>. (accessed August, 19, 2015)
- [2] KIHAS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study for the aged」, 2014.
- [3] Peplau, L., Bikson, T., Rook, K., & Goodchilds, J., "Being Old and Living Alone I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327-350, 1982.
- [4] K. T. Kim, B. G. Park,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20(1): 153-168, 2000.
- [5]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lderly Statistics Press Release(September. 29, 2014), URL: <http://kostat.go.kr>.
- [6] W. K. Choi, "A Study on the Eco-systemic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2012.
- [7] J. D. Kwon, Y. U. Cho,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20(3): 61-76, 2000.
- [8] S. D. Chung, "Living Arrange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Low-Income Elder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1: 59-79, 2003.
- [9] S. D. Ko, "An Analyt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10] Y. K. Oh,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in rural areas", Master's Thesis,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2014.
- [11] H. J. Lee, "The impact of social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community-dwelling elderly: comparing living arrangement",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8: 269-290, 2014.
- [12] M. H. Sung, Y. M. Lim, K. S. Joo,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5(1): 95-106, 2011.
- [13] S. R. Suh, M. H. Kim, "Influencing Factors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Journal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34(4): 705-716, 2014.
- [14] McClelland, K. A., "Self-conception and satisfaction: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6: 723-732, 1982.
- [15] H. K. Han, Y. R. Lee, "A Study on Factors Impacting on the Mental Health Level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Journal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29(3): 805-822, 2009.
- [16] K. S. You, H. S. Park, "Comparison of Health Status between Senior People Living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Their Families", Journal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23(4): 163-179, 2003.
- [17] S. Y. He, "The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18] Victor, C., Scambler, S., Bond, J., & Bowling, A., "Being alone in later life: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living alone", Reviews in Clinical Gerontology, 10: 407-417, 2000.  
DOI: <http://dx.doi.org/10.1017/S0959259800104101>
- [19] B. J. Jeon, "An Empirical Study on the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 Focusing on Living Arrangement", Social Science Research, 30(2): 189-212, 2014.
- [20] H. K. Kim, H. J. Lee, S. M. Park,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0(2): 279-292, 2010.
- [21] S. M. Yang, S. J. Hong, "Living Arrangement and Psychological Loneliness of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6): 129-139, 2003.
- [22] Beck, A. T., "Schuyler, D., Herman, I., Development of Suicidal intent Scale". In A. T. Beck, H. I. P. Resnik, D. J. Lettieri(Eds.), 「The Prediction of Suicide」, Philadelphia: Charles Press., 1974.
- [23] Q. L. Lin, H. K. Kim, J. S. Ann,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ctivity", Journal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31(1): 33-47, 2011.
- [24] M. R. Kim, "The Effect of Four Hardships(Poverty, Disease, Loneliness, Rolelessness) on the Perceived Stress and Mediating Effect of the Coping Resources of Older Wome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3: 303-330, 2009.
- [25] R. H. Song, "A Study o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0(4), 473-483, 2001.
- [26] M. A. Lee, J. B. Kim, J. H. Kang, "Living Arrangement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Korean Older Adults :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 Health and Social Science, 29: 41-67, 2011.

- [27] J. S. Lim, "The exploration of possible selves and the relationships of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mong Korean adults",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5.
- [28]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1985.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29] H. S. Kim, "A study of Influential Factor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Korean Seniors in Community",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2009.
- [30] Lawton M. P., Moss M., & Fulcomer M., "A research and service oriented multilevel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Gerontology, 37: 91-99, 1982.  
DOI: <http://dx.doi.org/10.1093/geronj/37.1.91>
- [31] J. W. Cha,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Participation to the Leisure Activities and their Self-Esteem, Loneliness, Helpless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2008.
- [32] Russell, D.,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0-40, 1996.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6601\\_2](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6601_2)
- [33] M. R. Lee, "A Study on the Health and Ego-Integrity of the Elderly",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illa University, 2011.
- [34]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s medicine, 38(5): 300-314, 1976.  
DOI: <http://dx.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35] J. S. Im, "Analyses of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Elderly Sport Participants",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2.
- [36]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85.

**이 화 영(Hwa-Young Lee)**

[정회원]



- 1992년 2월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 1995년 2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7년 8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가족복지

**조 성 희(Sung-Hui Cho)**

[정회원]



- 2001년 2월 :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사, 문학사)
- 2003년 8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가족치료